

성경의 식물들 명칭 번역에 관한 소고

임봉대*

1. 들어가는 말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에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의 식물 명칭이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된 것도 있고, 자연 환경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들은 비슷한 다른 식물 명칭을 쓰거나 히브리 원어를 우리말로 음역하여 그대로 쓴 것들도 있다. 특히 우리말 성경 번역 과정에서 중국어 성경의 식물 명칭에 영향을 받은 것들도 있는데, 오늘날 잘못된 명칭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한국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올바른 식물 명칭 사용에 관한 의식이나 원칙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대한성서공회가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을 개정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을 출판하였다. 그런데 개정의 원칙과 특징을 보면, 기존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대와 언어의 변화를 고려하여 달라진 국어 맞춤법과 문법에 따라 수정을 하고 어려운 고어와 한자어는 쉬운 말로 수정하고, 장애인 기피/차별 용어를 고쳤다.¹⁾ 그러나 성경의 식물 명칭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대부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식물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²⁾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된 『한국 성서 백년사 I, II』(이진호 지음, 1996)에서도 성경의 식물 명칭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그동안 한국어 번역 원칙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식물들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친숙해지고 성경의 식물들 가운데도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된 것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식물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성경에서 잘못된 옛 식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진지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성경에서 언급한 식물

*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구약학.

1) 민영진,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3판), 55 이하.

2) 창세기 6:14 방주의 재료와 관련하여 식물 명칭을 ‘갓나무’에서 ‘고페르 나무’로 바꾼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2.1. 고페르(גִּפְתֹּרִית)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들에 대한 잘못된 명칭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성경의 메시지를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경의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성경의 식물들에 대한 올바른 명칭의 사용과 이해가 요청된다.

2. 성경의 식물들 명칭 비교 분석

성경에는 약 125종의 식물들이 나온다. 여기에는 물론 나무나 풀, 잡초와 같은 일반 명칭도 포함이 된다. 그 중에 어떤 식물들은 성경에 수백 회 이상 등장하는가 하면, 어떤 식물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등장 횟수가 꼭 그 지역에 식물의 많고 적음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쥐엄열매(Carob) 나무는 성경에서 누가복음 15:16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중 하나이다.

성경의 식물들 명칭을 보면, 히브리어의 경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그 개념이 모호한 식물 명칭도 있다. 헬라어 번역이나 라틴어 번역을 통하여 식물 명칭에 대한 새로운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오랫동안 이슬람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식물 명칭에 대한 정확한 표기에 있어서 아랍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영어와 독일어 등의 성경 번역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식물 명칭 중 유럽, 특히 영어의 식물 명칭에서 비롯된 것들이 상당 부분 있다.

이 글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몇 가지 식물 명칭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한국어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에서는 어떤 명칭의 차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별된 한국어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의 비교와 함께 가장 적절한 식물 명칭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용된 본문은 『개역개정』(1998)을 기본으로 하고, 한글 성경으로는 『개역』(1952), 『공동번역』(1977), 『표준새번역』(1993), 『현대인의 성경』(1997)을 참고하고, 영어 성경으로는 *King James Version* (1611), *New International Version* (1984),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New Living Bible Translation* (1996)을 참고한다.

2.1. 고펀르(גֹּפֶר)

“너는 고펀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창 6:14)

『개역개정』의 식물 명칭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방주의 재목인 ‘고페르 나무’인데 히브리 원어인 ‘고페르(גֹּפֶרֶת)’를 그대로 한글로 음역한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개역개정』에는 ‘고페르’라고 히브리 음역으로 바꾸었다. ‘고페르(גֹּפֶרֶת)’는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³⁾

히브리어 ‘고페르(גֹּפֶרֶת)’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의 제임스 왕 역(King James Version)에서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gopher wood’라고 하였다. 현대 영어 번역들은 대부분 ‘사이프러스(cypress)’라고 번역하였지만, 아주 미약한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라 잘못된 번역일 가능성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사이프러스’를 뜻하는 헬라어 ‘쿠파리소브(*kuparissov*)’가 히브리어 고페르(*gopher*)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헬라어에서 ‘이소브(*issov*)’를 빼면 ‘쿠파르(*kupar*)’와 ‘고페르(*gopher*)’가 유사한 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⁴⁾

『개역』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번역하였는데, 아마도 잣나무가 우리나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가장 크고 견고한 나무로 좋은 재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동번역』에서는 전나무라고 번역하였는데, 영어성경의 ‘사이프러스(*cypress*)’를 뜻한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므로 『개역개정』에서 ‘고페르 나무’라고 음역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본다.

한글성경	창 6:14	영문성경	Gen 6:14
개역개정	고페르 나무	KJV	gopher wood
개역	잣나무	NIV	cypress wood
공동번역	전나무	RSV	gopher wood
표준새번역	잣나무	NRSV	cypress wood
현대인의 성경	잣나무	NLT	resinous wood

2.2. 감람나무(תַּיִט, 학명: *Olea europaea* L.)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창 8:11)

3) Francis Brown, B. R. Driver, and C. A. Briggs, ed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78), 172.

4) 임봉대, 『노아의 방주』 (서울: 조명문화사, 2010), 82 이하.

감람나무의 히브리 원어는 ‘자이트(זית)’로 영어로는 ‘올리브(olive)’이다. 올리브 나무는 신명기 8:8에 약속의 땅과 관련하여 언급된 세 종류의 나무 —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 중 하나이다. 올리브 나무는 성서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에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무이다.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올리브 나무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해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성경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는 25회 정도, 올리브유에 대해서는 160회 이상 언급되고 있다. 성경에서 기름이 언급될 경우 올리브유라고 생각하면 된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올리브 자체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올리브가 식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올리브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며 대제사장에 붓는 관유의 성분이다(출 30:24). 올리브유가 많은 것은 풍요의 신호이다. 여분의 기름은 6년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그 저장은 국가적인 중대사였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의 시대에 요아스는 감람유 공급의 중요한 책임이 있었다(대상 27:28).

『개역』이나 『개역개정』의 감람나무라는 번역은 중국어 성경에서 ‘감람’이라고 번역한 것을 따른 것이다. 중국 남부에서 자라는 감람나무와 열매의 모양이나 색깔, 맛과 용도까지 비슷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올리브’와는 다른 종류이다.⁵⁾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공동번역』이나 『표준새번역』은 ‘올리브’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한국의 대부분 교회들이 사용하는 『개역개정』에는 여전히 ‘감람나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올리브’는 일반화되어 ‘올리브 나무’, ‘올리브유’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올리브’ 혹은 ‘올리브 나무’ 등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

한글성경	창 8:11	영문성경	Gen 8:11
개역개정	감람나무 새 잎사귀	KJV	olive leaf
개역	감람 새 잎사귀	NIV	olive leaf
공동번역	올리브 이파리	RSV	olive leaf
표준새번역	올리브 잎	NRSV	olive leaf
현대인의 성경	감람나무 잎사귀	NLT	olive leaf

5) 정정숙, 『정정숙 전도사의 성서 식물』 (서울: 크리스찬 뮤지엄, 2009, 2쇄), 38, 류모세, 『얼린다 성경 - 식물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8), 47.

2.3. 고벨화(כַּפְּרִי, *Lawsonia inermis* L.)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아 1:14)

『개역개정』의 고벨화는 히브리 원어 ‘코페르(כַּפְּרִי)’를 그대로 음역한 것이다. ‘헤나(Henna)’는 고벨화의 아랍명인데, 아랍명이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어 유대인 중에서도 헤나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⁶⁾ 우리나라에서도 염색약 등에서 ‘헤나’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다. 고벨화는 10피트 높이까지 자라는 무성한 가지를 가진 관목이다. 잎들은 작고 타원형이다. 꽃들은 봄에 피는데 작지만, 대량으로 피고 아주 향기롭다. 말린 꽃들은 짙은 향내를 갖고 있다.

고벨화는 주로 염색이나 꽃무늬 장식 등, 화장품 재료로 쓰인다. 고벨화 잎을 건조하여 고운 가루로 빻는다. 이 가루는 물로 혼합한 다음 이를 정도 놔두면 불그스름한 풀 같이 되는데, 손톱이나, 손, 발에 칠하거나 머리를 염색하는데에 쓰였다. 클레오파트라가 손톱과 발톱에 바른 매니큐어도 이 고벨화 색소로 만든 것이다. 지금도 아랍의 백화점들에서는 이 고벨분(Henna powder)을 팔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염색약 명칭에 ‘헤나(Henna)’가 등장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공동번역』과 같이 ‘헨나 꽃송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한글성경	아 1:14	영문성경	Sol 1:14
개역개정	고벨화	KJV	a cluster of camphire
개역	고벨화	NIV	a cluster of henna blossoms
공동번역	헨나 꽃송이	RSV	a cluster of henna blossoms
표준새번역	고벨 꽃송이	NRSV	a cluster of henna blossoms
현대인의 성경	꽃송이	NLT	a bouquet of flowers

2.4. 갓(גַּי, 학명: *Coriandrum sativum* L.)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출 16:31)

6) 정정숙, 『정정숙 전도사의 성서 식물』, 52.

깻씨(출 16:31; 민 11:7)는 깻의 씨앗이며, 깻은 우리나라에 없던 식물이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 깻(קַיָּן)을 그대로 음역한 것이다. 깻은 고수풀이며, 『공동번역』, 『표준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등은 깻씨를 고수 씨로 바르게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들도 모두 고수 씨(coriander seed)로 되어 있다.

한글성경	출 16:31	영문성경	Exo 16:31
개역개정	깻씨	KJV	coriander seed
개역	깻씨	NIV	coriander seed
공동번역	고수 씨	RSV	coriander seed
표준새번역	고수 씨	NRSV	coriander seed
현대인의 성경	고수 씨	NLT	coriander seed

2.5. 로뎀 나무(רֹטֵם, 학명: *Retama raetam*, white broom)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의 허락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왕상 19:4-5)

로뎀 나무는 콩과의 관목으로 2-3미터까지 자란다. 『개역개정』의 ‘로뎀 나무’는 히브리어 원어 ‘로뎀(רֹטֵם)’을 그대로 음역한 것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juniper tree (KJV)로 번역하기도 하나 대부분 broom tree라고 번역하고 있다. 성경의 로뎀 나무는 중동 지역의 사막의 구렁이나 암석지대, 건조지역에 가장 흔한 식물 중 하나이다. 건조 지대에 있는 많은 관목들과 달리, 로뎀 나무는 1년 내내 푸름을 유지한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줄기는 우기 중 짧은 기간 동안 작은 잎들이 있는데, 바늘 모양이다. 매혹적인 흰 꽃 덩어리는 겨울이 끝날 무렵에 핀다. 잎사귀들이 없어 꽃들이 유난히 두드러지게 보인다.⁷⁾

로뎀 나무는 그 뿌리가 땅 속 깊숙이 물의 근원에까지 뻗어 있어서 햇볕이 내려 쬐고, 또 나무들이 없는 사막에서 서늘한 그늘을 제공해 준다. 로뎀 나무는 몇 달 동안 비가 없는 사막에서도 살아남는다.

7) Michael Zohary, *Pflanzen der Bibel. Vollständiges Handbuch von Professor Michael Zohary* (Clawer Verlag Stuttgart, 1995), 144.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로템’을 ‘싸리나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이나 『개역개정』도 욥기 30:4에서는 ‘로템’을 ‘대싸리’로 번역하였다.

“떨기나무 가운데 짝 나물을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는 나라”(욥기 30:4)

여기서 ‘대싸리’는 히브리어 원어로 로템 나무이다. 로템 나무가 빗자루를 만드는 대싸리 같이 생겼기 때문이다.⁸⁾ 로템 나무 뿌리가 땅 속 깊이 물의 근원에까지 뻗어 있으니, 수분이 있어서 입으로 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한글성경	왕상 19:4-5	영문성경	I Ki 19:4-5
개역개정	로템 나무	KJV	a juniper tree
개역	로템 나무	NIV	a broom tree
공동번역	싸리나무 덩불	RSV	a broom tree
표준새번역	로템 나무	NRSV	a solitary broom tree
현대인의 성경	싸리나무	NLT	a solitary broom tree

2.6. 종려나무(תְּמָרָה, 학명: *Phoenix dactylifera* L.)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들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출 15:27)

종려나무(학명: *Phoenix dactylifera*)는 약속의 땅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가운데 하나로, 히브리어 원어는 ‘다말(תְּמָרָה)’이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로서 다윗왕의 조상을 낳은 여인인 ‘다말’과 같은 이름이다. ‘다말’이라는 말은 현대 히브리어와 아랍어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지금도 여인들의 이름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성경에 종려나무가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있는 엘림에 들

8) 류모세, 『엘림다 성경 - 식물 이야기』, 151.

어섯을 때였다. 엘림에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했다(출 15:27). 광야 생활 40년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 첫 번째로 점령한 도시인 여리고는 가장 대표적인 사막 오아시스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다(신 34:3; 사 1:16; 3:13). 여리고에는 엘리사의 연못(왕하 2:21)이 있어 물이 풍부하였다.

정정숙은 그의 저서에서 “성경에 종려나무로 지칭된 것은 대추야자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다. 종려나무(학명: *Trachycarpus excelsa*)는 중국과 일본이 원산으로 부챗살을 편 듯한 장상 잎을 지니며 가을에 1cm 정도로 작고 단단한 핵과가 겹겹이 익지만 먹지는 못한다”⁹⁾며 종려나무와 대추야자 나무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반면에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는 따먹을 수 있고 싱싱한 꽃과일 즙에서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8월경 대추가 익으면 시럽을 만들거나 말려서 보관하는데, 이 시럽을 유대인들은 ‘드바쉬’(꿀)라고도 한다(신 8:8; 대하 31:5). 그리고 말린 대추는 설탕에 졸인 것보다 더 달콤하여 유목민들의 주요 저장 양식이 된다. 잘 익은 대추는 살짝 찌서 말리기도 한다.”¹⁰⁾고 설명하고 있다.

종려나무는 높이가 10-20m에 이르며, 2-3m 정도 가늘고 긴 잎사귀들이 달려 있다. 종려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으며, 5년생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연초에 꽃이 피었다가 여름이 끝날 무렵에 열매가 열린다. 종려나무는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유익한데, 바구니를 만들고 지붕을 엮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나무줄기는 건축에 사용되었다.¹¹⁾

종려나무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에서 자라고 풍성한 대추야자 열매를 맺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상징한다.¹²⁾ 그리고 종려나무는 솔로몬 성전의 장식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특별히 거룩한 곳을 지키는 그룹과 연관되어 있다(왕상 6:29, 32, 35). 그래서 학자들은 종려나무를 에덴 동산에서 그룹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성한 식물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³⁾ 역사적으로는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다. 사사기 4:5에서는 드

9) 정정숙, 『정정숙 전도사의 성서 식물』, 308.

10) Ibid., 310.

11) Michael Zohary, *Pflanzen der Bibel*, 61.

12) Paul Romanoff, “Jewish Symbols on ancient Jewish Coins (continued)”, *The Jewish Quarterly Review* 33(1943), 435.

13) Othmar Keel and Christoph Uehlinger, *Gods, Goddesses, and Images of God in Ancient Israel*, Thomas H. Trapp,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153; Elizabeth Bloch-Smith, “Who is the King of Glory? Solomon’s Temple and its Symbolism”, Michael D. Coogan, J. Cheryl Exum and Lawrence E. Stager, eds., *Scripture and Other Artifacts. Essays on the Bible and Archaeology in Honor of Philip J. K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25

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앉았다는 말이 있는데, 드보라는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침으로써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승리를 안겨준 사사였다. 회람의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후 헬라 정권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III세에 의해 주전 2세기경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우스 올림푸스와 동일시되었고, 안식일 준수, 할례 등이 금지되었으며, 율법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형에 처했다.

이때 유대인의 지도자 중 랍비 유다 마카비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 유대인 봉기를 일으켰다. 주전 164년 마카비는 독립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였다. 마카비가 독립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가지들을 들고 나와 맞이하였다.

마카비는 기념 동전을 발행하면서, 승리의 상징으로 종려나무를 동전에 새겨 넣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주후 70년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만든 기념주화에는 패배한 유대인의 상징으로 유대 여인이 종려나무 아래 앉아 울고 있는 그림을 새겨 넣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1:9) 하며 환영하였다. 이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가 종려주일이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종려나무는 기독교인들에게 부활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계 7:9)

한글성경	출 15:27	영문성경	Exo 15:27
개역개정판	종려나무	KJV	palm tree
개역	종려나무	NIV	palm tree (NASB, date palms)
공동번역	종려나무	RSV	palm tree
표준새번역	종려나무	NRSV	palm tree
현대인의 성경	종려나무	NLT	palm tree

2.7. 살구(ἄμυγδαλίς, 학명: *Amygdalus communis* L.)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갈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출 25:33-34)

『개역개정』에 살구는 모두 8번 나온다(창 30:37; 출 25:33, 34; 37:19, 20; 민 17:8; 전 12:5; 렘 1:11). 그리고 창세기 43:11에서는 ‘파단행’이라고 번역하였다.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은 살구 대신 감복송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모두 ‘아몬드(almond)’라고 바르게 번역하고 있다.

아몬드 나무(학명: *Amygdalus communis*)는 가늘고 밝은 녹색의 잎을 가진 중간 크기의 나무이다. 무화과나무나 올리브 나무와 달리, 아몬드는 수명이 길지 않다. 흰색에 다섯 갈래로 나누어진 꽃잎들은 2인치까지 자라고 늦은 겨울, 나무 잎이 성장하기 전에 핀다. 꽃들이 일찍 1월 말이나 2월 초에 피기 때문에 겨울이 끝나면서 제일 먼저 피는 꽃으로 봄소식을 알리는 꽃이다.¹⁴⁾

꽃이 피고 난 한달 후에 특이한 녹색 잔털이 많은 과일들이 맺기 시작을 한다. 열매는 상큼한 신 맛이 나는데, 아랍인들에게는 아주 보편화된 간식용으로 팔리고 있다. 8월 중순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성장의 계절 말기에 견과들이 수확된다. 아몬드는 복숭아, 살구, 버찌 같은 단단한 과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몬드는 성경에 8회밖에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아론의 지팡이에 핀 꽃이 아몬드 꽃이며, 성전의 등대에 22개의 아몬드 꽃 형상을 새기도록 하였다. 예레미야 1:11에,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에서 ‘살구나무’의 히브리어는 ‘샤케드(שָׁקֵד)’이다. 계속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에서 ‘지켜’의 원어는 ‘쇼케드(שָׁקֵד)’로 아몬드 나무 ‘샤케드(שָׁקֵד)’와 같은 자음을 갖고 있다.¹⁵⁾

이는 내가 본 ‘샤케드(שָׁקֵד, 아몬드 나무)’를 ‘쇼케드’(שָׁקֵד, 지킨다)는 말로, “내가 본 것을 내가 지킨다.” 혹은 “내가 보고 예언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보증으로서의 확답을 뜻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몬드 나무 환상에서 보여준 것이다.

14) L. Yarden, *The Tree of Light: A Study of the Menorah. The Seven-Branched Lampstan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40.

15) Francis Brown, B. R. Driver, and C. A. Briggs, ed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1052에 나오는 단어설명인 שָׁקֵד(watch, wake)와 שָׁקֵד(almond)를 참고하라. שָׁקֵד는 שָׁקֵד의 능동분사형(Pt. act.)이다.

그 외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증거로 아몬드 나무(창 30:37)가 이용되는가 하면, 전도서 12:5에서는 아몬드의 흰 꽃이 노인의 백발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한글 성경	출 25:33-34	영문 성경	Exo 25:33-34
개역개정	살구꽃	KJV	almonds
개역	살구꽃	NIV	almond flowers
공동번역	감복숭아 꽃	RSV	almonds
표준새번역	감복숭아 꽃	NRSV	almond blossoms
현대인의 성경	살구꽃	NLT	almond blossom

2.8. 아욱(חֲלָמוֹת, 학명: *Malva sylvestris* L.)

“싱거운 것이 조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욥 6:6)

‘닭의 알’은 히브리 원어로 ‘할라무트(חֲלָמוֹת)’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달걀(egg, KJV, NIV), 쇠비름(purslane, RSV), 아욱(mallows, NRSV) 등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한국어 성경에서도 ‘닭의 알’(『개역개정』, 『개역』), ‘멸건 흰죽’(『공동번역』), ‘싱거운 음식’(『표준새번역』), ‘달걀 흰자위’(『현대인의 성경』)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인 ‘할라무트(חֲלָמוֹת)’는 ‘아욱’이라는 식물이다.¹⁶⁾ 아욱은 우리나라에서도 국을 끓일 때 사용하는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글성경	욥 6:6	영문성경	Job 6:6
개역개정	닭의 알	KJV	in the white of an egg
개역	닭의 알	NIV	in the white of an egg
공동번역	멸건 흰죽	RSV	in the slime of the purslane
표준새번역	싱거운 음식	NRSV	in the juice of mallows
현대인의 성경	달걀 흰자위	NLT	in uncooked white of an egg

16) 정정숙, 『정정숙 전도사의 성서 식물』, 266.

3. 나가는 말

이상에서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성경의 식물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면서 때로는 문자적인 의미로 때로는 은유적인 의미로 본문 내용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¹⁷⁾ 성경의 식물들은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성경에서 삶과 죽음, 의로움과 성장, 풍요로움과 헛됨 등의 상징이나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징이나 비유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의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성경의 식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식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있어서 올바른 명칭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한국어 성경이 1882년부터 번역되기 시작하여 1911년 신구약 성경전서가 완간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중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소한 식물들이 많았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의 식물 명칭이나 원어의 음역, 나아가 우리나라에 있는 비슷한 식물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성경인 『개역개정』에 아직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 각국의 많은 식물들이 오늘날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중에서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명칭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식물들과 그와 관련된 본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한국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식물학적 관점에 따른 적절한 식물 명칭의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투고 일자: 2012. 10. 14.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1.)

17) Leland Ryken, James C. Wilhoit, Tremper Longman III, eds.,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IVP Academic, 1998), 649.